

VENTURE FOCUS

소식
PLUS

신기술과 신마케팅으로 일군 21세기 벤처

'COWON D2', CNET Asia 에디터 선정 최우수 추천제품



코원시스템(대표 박남규, www.cowon.com)의 프리미엄 MP3 'COWON D2'가 씨넷 아시아(CNET Asia, http://asia.cnet.com)의 에디터들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되었다. 씨넷 아시아측은 터치스크린 기반의 편리한 조작성, 넉넉한 재생시간, 뛰어난 반응속도, 저장 공간 확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COWON D2'가 최고 평점을 받아 삼성, 아이리버, 크리에이티브 등을 제치고 에디터스 초이스('Editors' Choice')제품으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코원의 이명용 부사장은 "COWON D2는 일반 제품보다 진보된 프리미엄 MP3로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프리미엄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선도 기업으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COWON D2'는 1,600만 컬러의 고화질 터치스크린을 장착하여 다양한 포맷의 오디오는 물론 30프레임의 고화질 동영상 재생을 구현한 고성능 프리미엄 MP3로 지난 12월 첫 출시 후 국내외에서 크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제품이다.

티맥스소프트와 한국HP, 차세대 시스템 시장 석권 위해 손잡다



세계적인 컴퓨팅 기업 휴렛팩커드와 국내 최고 기술력의 소프트웨어업체 티맥스소프트가 차세대 시스템 시장 석권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사는 이번 차세대 솔루션 센터를 기반으로 차세대 사업의 수주와 성공적 수행을 위해 양사 제품과 서비스를 적극 제안하고, PoC(Proof of Concept)나 벤치마크테스트(Benchmark Test) 진행시 고객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상호 전문 인력 지원은 물론 정기적인 영업 및 기술교육도 진행하며, 성공 구축사례에 대한 국내외 홍보와 공동 세미나 개최 등 영업마케팅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네오위즈 재팬 - 엠게임 재팬, 전략적 제휴 체결



네오위즈 재팬과 엠게임 재팬이 일본 게임시장 공략을 위해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제휴에 따라 양사가 보유한 웹보드게임과 온라인게임의 핵심 경쟁력을 함께 공유하며 네오위즈 재팬은 엠게임 재팬의 게임포털 사업 진출을 적극 돕고, 엠게임 재팬은 온라인게임 사업에 대한 노하우와 자원을 함께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네오위즈 재팬은 이번 제휴로 새로운 게임사업의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시장규모 확대와 매출 증대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본 게임시장 지배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네오위즈 재팬은 작년 4월 일본 게임포털 '게임쥬'(www.gamechu.jp)를 오픈하고 박진환 대표를 전격 투입하며 본격적인 일본 게임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으며, 엠게임 재팬(www.mgame.jp)은 5종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통해 일본 게이머들의 큰 인기를 거두며 급 성장하고 있다.

(주)메디톡스, 해외 공동 개발·상업화 계약 체결



유럽 바이오텍 회사인 Q-Med사와 기술 이전, 공동 개발 계약 [IMG1] 보툴리눔 바이오 의약품(제품명 : 메디톡스)을 독자기술로 개발해 판매중인 국내 바이오벤처 기업인 (주)메디톡스(대표 정현호, www.medytox.com)는 13일 유럽의 유명 바이오텍 회사인 Q-Med AB(www.q-med.com)사와 기술 이전 및 차세대 제품 공동 개발을 위한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을 통해 양사는 신규 보툴리눔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해 바이오 의약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 등에 새롭게 진출하기로 했다.

또 양사의 노력으로 차세대 제품이 개발되면 매출의 일부를 별도의 로열티로 받게 되며, 한국과 인도, 태국, 싱가포르 등 해외시장에 대한 독점판매권도 확보하게 된다.

팅크웨어, 5,500여 점의 문화재지리정보체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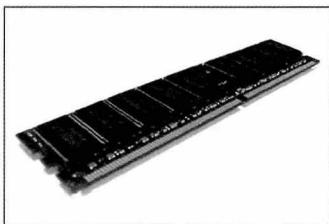


문화재청(청장 유흥준)과 팅크웨어(대표 김진범)는 8일 오후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문화재 1지킴이 운동' 기업참여 협약식을 갖고, 전국의 문화재에 대한 위치정보와 설명이 담긴 '차량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9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서비스는 '문화재지리정보체계(GIS) 구축 사업'의 성과를

민간의 내비게이션 서비스 기술 등에 접목시켜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팅크웨어의 '아이나비(INAVI)' 서비스를 통해 국가지정 문화재(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자료)와 시도지정 문화재(유형문화재·기념물·문화재자료) 등 전국의 지정문화재 5천500여 점에 대한 상세한 위치정보와 내용 소개는 물론, 권역별·주제별 문화재 탐방 서비스 등 다양한 관련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니세미콘, 4GB 서버용 메모리 모듈 개발



유니세미콘, 벤처기업 최초 반도체특수패키지 개발 업체인 유니세미콘(대표 차기범)은 11일 동일한 공간에 2배 용량의 서버용 메모리를 쌓을 수 있는 적층 패키지를 이용한 4GB 서버용 메모리 모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국내 벤처기업으로서 처음 만든 이 제품은 금이 도금된 미세한 커넥터를 사용해 모듈간의

접합성이 뛰어나며, 열공정을 1~2회로 줄여 제품의 내구성이 우수하다.

회사 측은 관계자는 "이 제품은 1Gb D램을 총 36개까지 탑재할 수 있고, 세계반도체 표준(JEDEC) 규격과 호환성을 갖도록 제작돼 이미 해외 반도체 메이커와 모듈 업체로부터 공급요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웹2.0 요즘엔, 최강 동영상 UCC 보유한 다모임과 제휴



웹 2.0을 기반으로 한 국내 개인화 사이트의 지표 요즘엔(www.yozmn.com)이 동영상 UCC계의 최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엠엔캐스트(www.mncast.com)와 아우라(www.aura.co.kr)를 보유한 다모임(대표 이규웅)과 제휴를 체결했다.

동영상 포털 아우라는 핫클립 XML을 요즘엔에 제공하고 요즘엔에서는 제공받은 xml을 Open API로 회원들에게 모듈로서 제공하며, 엠엔캐스트는 요즘엔 블로그 내에서 동영상 업로드 시 엠엔캐스트 동영상 솔루션을 이용한 동영상 업로드를 지원함으로써 요즘엔과 엠엔캐스트에 동시에 동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다.

다모임의 아우라, 엠엔캐스트의 동영상 콘텐츠 100만 건 역시 요즘엔에 동영상 검색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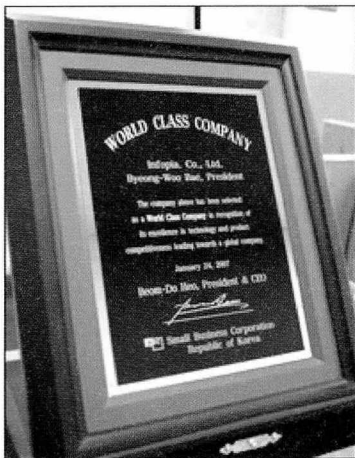
웹 2.0을 대표하는 개인화 페이지 서비스, 웹 기반 RSS 리더 서비스, 블로그 서비스를 모두 갖추고 있는 요즘엔은 다모임과의 제휴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동영상 UCC 부분까지 소화할 수 있게 되면서 타 업체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게 되었다. 더구나, 블로그 부분을 2월까지 대폭 업그레이드 계획을 세우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VENTURE FOCUS

소식
PLUS

해외 시장 공략하는

글로벌 벤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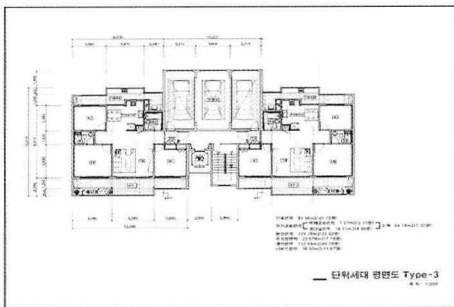
인포피아, '월드클래스컴퍼니' 수상으로 글로벌바이오로 급부상

혈액진단 바이오센서 전문기업 (주)인포피아(대표 배병우, www.infopia21.com)는 최근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우량 중소기업 평가회에서 '월드클래스 컴퍼니(World Class Company)'로 선정돼 상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국의 수많은 중소기업 중 단 10개 업체만이 이번에 'World Class Company'로 선정됐다. 중진공은 월드클래스 컴퍼니로 선정된 기업이 세계적인 기술력과 고품질 제품으로 세계시장을 리드할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인포피아는 최근 수년간 연평균 100% 성장을 지속하며 2006년 매출 207억 원, 당기순이익 55억 원을 달성, 국내 바이오 기업을 통틀어 매출과 이익률에서 선두업체로 급부상한 벤처기업이다.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바이오 업체로는 드물게 이미 '천만불 수출의 탑'을 받기도 했다.

이엠텍, 개인 차고 보유 기술 개발



폴리텍II대학 테크노파크 이엠텍(총괄책임연구원 박진수)은 차량엘리베이터와 RF ID칩 기술을 응용해 고층 아파트에서 내 차를 내 집 공간에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에 나선다고 1일 발표했다. 이엠텍이 특허청에 특허와 실용신안 등록을 마친 이 기술은 건설업체가 특허를 활용해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엠텍은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특허 양도 교섭도 가능하다.

이 기술은 차량에 붙인 무선ID칩을 인식하여 자기 집 동 호수 차고를 찾아 주차를 하는 것으로 아파트 평수에 맞게 25~35평은 1대, 40~50평 이상 큰 평수는 2대까지 주차를 할 수 있게 설계된 시스템이다.

이 기술은 이용하면 내차를 내 아파트 거실 옆에 주차하여 관리하므로 기존 지하 주차공간에서 부녀자들에게 야기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간단한 세차나 정비 등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안전을 위하여 방화벽 설치와 화재 방재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이 일체형 개인 차고는 RF 제어방식으로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차 주인은 퇴근한 뒤 고층아파트 엘리베이터처럼 생긴 별도의 주차 엘리베이터 진입 공간 케이지에 차를 세우고 리모컨 비밀번호를 누르면 자동으로 차량이 차량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주차공간으로 올라가 주차된다.

이 기술을 개발한 이엠텍 박진수 책임연구원은 "이 특허는 새로운 개념의 주차방법으로 건축법상 (시행령 제119조) 지상층의 주차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 되므로 앞으로 아파트 건설시장에서 많은 관심과 활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플라인스튜디오, 모바일 게임전용 컨트롤러 개발



벤처기업 플라인스튜디오(대표 정성욱)는 모바일게임 전용 컨트롤러인 제그(XEG)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모든 휴대폰에 장착해 사용하는 지능형 컨트롤러다.

플라인스튜디오는 게이머들이 휴대전화게임을 즐길 때 가장 아쉬워하는 점이 버튼이라는 점에 착안해 개발했다.

제그는 비디오게임 컨트롤러처럼 양손을 사용해 모바일게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용화된 대다수 휴대폰과 호환이 가능해 일반 휴대폰에서도 슈팅게임, 전략 시뮬레이션게임, 롤플레이팅게임 등을 실감나게 즐길 수 있다.

또한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핫키를 내장해 제그 전용 모바일게임 웹(WAP) 사이트에서 게임을 바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창천 온라인', 게임음악부문 우승, 2007미뎀에서 수상

(주)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대표 박관호/이하, 위메이드)는 자사가 개발 중인 <창천 온라인>의 BGM이 2007 미뎀(MIDEM) 국제 음악박람회 게임음악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창천 온라인>은 지난 1월 22일 프랑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의 음악산업 전시회인 미뎀의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리스닝 세션(Computer Entertainment Listening Session)'에 참가, 세계 각국에서 선정된 20여 개의 음악을 제치고 1등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미뎀의 메인 테마는 게임음악이었으며, 이에 소니(SONY) 주최로 열렸던 본 세션에는 세계 각국의 유명한 밴드, 음악가들이 자리했다.

위메이드 사운드팀의 임지운 팀장은 "IT강국인 한국의 게임에 대한 인프라와 기술이 게임음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며 "서양 게임처럼 막대한 자본을 들이지 않아도 게임의 특성이 살아나는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에 후한 점수를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지오인터랙티브, '스케쳐' 2007년 최고 기대작

모바일게임 전문 업체 지오인터랙티브(대표 김병기, <http://www.clubzio.com>)는 자사가 개발한 모바일게임 '스케쳐'가 세계 최대 게임 정보 사이트인 IGN(www.ign.com)이 선정한 2007년 최고 기대작 5선중, 국내 게임으로는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다고 밝혔다.

'스케쳐'는 국내 출시 전인 지난 7월 초 이미 미국 이동사인 Verizon사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SK텔레콤 '8월의 킬러게임'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2006년 8월 '이 달의 우수게임'으로 선정됐다. 현재 국내 3사 이동사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스케쳐'는 네트워크 버전인 '스케쳐 넷벵들'도 서비스 중이다.

미국 이동사인 Verizon, Cingular, T-mobile, Sprint에는 다음 달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며 작년 12월에는 중국과의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유럽시장도 상반기 중에 진출할 예정이다. 추가 정보는 <http://www.clubzio.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내 전화결제 美서도 통했다 모빌리언스의 '폰필'

토종 온라인결제 벤처기업이 미국 전화결제시장에 진출했다.

온라인결제 전문 업체 모빌리언스(대표 황창엽)는 자사 미국법인인 미국 유일의 유선전화 결제 기업인 페이먼트원(대표 조리남)과 계약을 맺고 미국 현지 인터넷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폰필'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페이먼트원은 2000년 AT&T 등 주요 통신업체 출신들이 창업한 회사로 미국 1,000여 개 이상의 유무선 통신회사, 브로드밴드회사와 상호 정산이 되는 과금 연동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번 제휴로 모빌리언스 미국법인인 페이먼트원의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해 독립적인 폰필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적인 운영과 마케팅으로 1억 5,0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에게 전화를 통한 인터넷 결제 서비스(폰필 결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빌리언스는 지난 해 초 미국법인을 설립한 후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실시했고 폰필 결제 서비스를 인터넷서비스 업체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